

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1) 피부결핵, 단순포진, 수두, 대상포진, 종두진, 매독 환자
- 2) 이 약 또는 이 약의 성분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 3) 고막 천공이 있는 습진성 외이도염 환자(천공부위의 치료가 지연되고, 감염이 유발될 수 있다)
- 4) 피부궤양(베체트병 제외), 제2도 심재성 이상의 화상 및 동상 환자(피부재생이 억제되고 치유가 지연될 수 있다)
- 5) 세균, 진균, 스피로헤타, 바이러스 피부감염 또는 동물성 피부병(옴, 사면발이 등) 환자(감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 6) 주사(rosacea), 여드름, 입주위피부염 환자
- 7) 항문주위 및 생식기 가려움 환자
- 8) 2세 미만의 소아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 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 2) 소아
- 3) 고령자
- 4) 이 약은 프로필렌글리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3. 이상반응

- 1) 피부감염증 : 때때로 피부의 진균성(칸디다증, 백선증 등) 및 세균성(전염성 농가진, 모낭염 등), 바이러스성 감염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적절한 항진균제나 항균제 등을 병용하고 증상이 빨리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 2) 기타의 피부증상 : 때때로 스테로이드성 여드름, 스테로이드성 피부(피부위축, 모세혈관확장), 스테로이드성 주사·입주위 피부염(입주위, 안면 전체에 홍반, 구진, 모세혈관 확장, 가피, 인설 등이 생긴다), 드물게 어린

선(魚鱗鰭)양 피부변화, 자반, 다모, 색소탈색, 피부건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천천히 사용을 중지하고 코르티코이드를 함유하지 않은 약으로 바꾸어 사용한다.

3) 과민반응 : 접촉피부염, 피부 자극감, 가려움, 홍반, 발진, 종창 등이 나타날 수 있다.

4) 뇌하수체·부신피질계 : 대량 또는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사용에 의해 뇌하수체·부신피질기능 억제가 나타날 수 있다.

5) 눈 : 안검피부에 사용시 안압 상승,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대량 또는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사용에 의해 후낭하백내장, 녹내장이 나타날 수 있다.

4. 일반적 주의

1) 피부 감염을 수반하는 습진·피부염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먼저 적절한 항균제(전신작용), 항진균제로 치료하거나 이들과의 병용을 고려한다.

2) 대량, 장기간,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코르티코이드 전신투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의사의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3) 국소 코르티코이드의 전신적 흡수는 몇몇 환자에서 가역적인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HPA) 축의 억제, 쿠싱증후군, 과혈당증, 당뇨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국소 코르티코이드를 광범위한 체표면 또는 밀봉봉대법 하에 사용하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혈중 코르티솔 농도, 요중에 유리되는 코르티솔을 측정하거나 ACTH 자극시험을 하여 HPA축 억제를 검사한다.

4) 국소 코르티코이드의 전신적 흡수로 인해 HPA축이 억제되었다면 약물사용의 중지, 투여빈도의 감소, 활성이 약한 코르티코이드로의 대체 등의 방법을 시도하고 일반적으로 국소 코르티코이드 약물투여 중지 후 HPA축 기능은 신속히 회복된다.

5) 장기간의 연속적인 사용은 특히, 소아에 있어 밀봉봉대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신 억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한다.

6) 안면에 사용할 경우 기간은 가능하면 5일 이내로 제한하고, 밀봉봉대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7) 장기연용하지 않는다.

8) 건선에 국소 코르티코이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반동성 재발, 내성 발현, 전신성 농포성 건선의 위험 및 피부 장벽 기능의 장애로 인한 국소 또는 전신적인 독성 등으로 위험하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9)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10) 증상이 개선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용을 중지한다.

11) 국소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 시 치료 중단 후 국소 스테로이드 금단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민감한 피부를 치료할 때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증상으로 심한 발적, 작열감, 따가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치료 후 며칠에서 몇 주 이내에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 국소 스테로이드 금단 증후군을 의심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이 약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5.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신한 랫트와 마우스에 연일 피하투여한 동물실험에서 기형 발생이 보고되었다.

2) 임부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대량 또는 장기간에 걸친 사용을 피한다. 특히 임신 첫 3개월간은 사용하지 않는다.

3) 피부에 장기간, 광범위하게 사용시에는 수유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게 이 약의 장기간에 걸쳐 대량 사용 또는 밀봉봉대법에 의하여 발육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기저귀도 밀봉봉대법과 같은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7.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에 투여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대량 또는 장기간 광범위한 부위에 밀봉봉대법을 사용하는 경우 특히 주의한다.

8. 적용상의 주의

1) 안과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화장이나 면도 후 등 치료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